| 불자 세상보기 |

4차 산업혁명과 불교 · 인문학



석길암 교수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눈 앞에 있는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대한 사회 논의 확산
혁신적 정보기술이 삶 바꿔

3 · 4차 産革, 동질 · 이질 내포
4차 산업혁명은 이전보다도
해당 사회의 인문 역량 주요

한국사회, 과학기술적 접근만
이제는 인문학적 논의 필요해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아니 이미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해진다. 2016년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주요 의제로 상정되고 논의되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구조의 전체적 변화에 대한 대응이 당장 우리 사회의 당면한 현실로 닥치고 있는 모양새이다. 안팎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불교학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한국불교학회가 2017년 12월 '불교와 4차 산업'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고, 그 준비의 일환으로 다섯 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그간 불교학계 그리고 불교계는 한국사회 혹은 더 나아가 세계사회의 이슈를 선점하고 이끌었던 것이 아니라 쫓아가는데 급급했었다는 점을 기억하면, 한발 빠른 행보라는 점에서 사뭇 기대되는 행보라 아니할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 지능 · 사물 인터넷 · 빅데이터 · 모바일 등으로 대표되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 · 사회 전반과 융합하면서, 개인의 일상으로부터 국가 단위에 이르기까지 삶을 움직이는 프레임이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작동하며 나타나는 혁신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주축이 되는 것은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이고, 그 혁명적인 정보통신기술들이 사회전반에 걸친 삶의 프레임을 재구축할 것이라는 전망이 여기에 담겨 있다.

증기기관으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 대량생산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2차 산업혁명, 정보화 그리고 자동화 생산시스템으로 대표되는 3차 산업혁명 등 이전까지의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은 어떤 측면에서는 동일한 연속선상에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전혀 이질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동일한 것은 이들 산업혁명들이 기본적으로 기술의 발전을 중요한 분기점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질적이란 것은 4차 산업혁명이 이전의 산업혁명과 달리 훨씬 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문적 역량을 많이 반영할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스마트폰을 매개로 하는 경제활동에는 첨단기술 못지않게 인문적 사고방식이 중요한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고 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그러한 형태의 변화가 인공 지능, 사물인터넷 · 빅데이터 · 모바일 등을 매개로 사회전반에 걸친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 셈이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그러한 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는 시각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우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인문(人文)' 곧 사람의 삶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잊는다면, 우리는 또 한 번 시대를 뒤쫓아가는 후발주자가 될 뿐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선도하는 자가 되려면, 첨단과학기술 못지않게 인문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제고할 필요가 있다. 불교는 인간 삶의 현실과 그 극복을 이야기하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인간다울까를 말하는, 오래 된 하지만 늘 새로운 사유체계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역사 속에 기본적인 인문정신으로 작동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우리 삶의 현실로 도래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담아낼 많은 인문적 콘텐츠를 내장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이기도 하다.

이제 하드웨어 못지않은 소프트웨어를 챙길 시점이다.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는 우리 역사속의 인문정신, 불교문화의 사유전통에서 조금도 벗어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때이다.

社說

불교, 'Z세대' 포교 나서라

한때 X세대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1990년대 중반에 새로운 세대를 칭하는 말이었다. 이들은 산업화의 결실인 물질적 풍요에서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을 형성했으며, TV와 급격히 보급된 PC에 심취했다.

그 이후 인터넷 세대인 밀레니엄 세대를 지나 최근에는 Z세대라는 용어가 유행이다. Z세대를 구분 짓는 가장 큰 특징은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이다. 이들은 스마트폰이 보급되던 시대에 태어나 소셜미디어 이전의 시간을 모른다. TV와 PC보다 모바일 기기에 더욱 익숙하며 쌍방향 소통이 기본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다.

그렇다면 이들 세대를 위한 포교는 무엇이 있을까. 애석하게도 불교는 Z세대는 커녕 밀레니엄 세대 포교에도 벅찬 실정이다. 불교계 IT전문가들은 모바일 웹이 미숙한 불교계 현실을, 설법전문가들은 사찰 법회에 맞춰져 있는 법문 형식을 지적한다. 청년불자들은 다른 Z세대에게 포교를 하려고 해도, 이들의 관심을 끌만한 콘텐츠가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이미 불교계는 지난해 통계청의 2015 인구총조사 결과를 통해 불자 감소의 심각성을 느낀 상태다. 그 내면을 보면 청년불자, Z세대의 이탈이 더욱 눈에 띈다. 이는 불교의 미래가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불교는 변해야 한다. Z세대에 맞는 모바일 인프라를 구축하고, 동영상, 만화와 같은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개발에 나서야 한다. 법문 형식도 동영상 서비스에 맞게 짧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바뀌어야 한다.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포교 혁신 만이 불교를 살릴 수 있다. Z세대 포교를 위한 변화는 이제 생존이다.

3.1운동 100주년 사업에 거는 기대

앞으로 2년 뒤인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해이다. 현재 천도교를 중심으로 불교 · 천도교 · 기독교의 3.1운동 활동상을 조명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고, 기독교도 자체적인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불교계 항일 운동을 망라하는 사업이 본격화 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가 오는 6월 30일 오후 2시 템플스테이 3층 문수실에서 '3.1운동 발발 배경과 개요'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기 때문이다. 이 세미나가 의미가 있는 것은 조계종 3.1운동 100주년 사업의 첫 시작을 알려서다.

3.1운동 100주년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불교사회연구소는 지난해 '3.1운동 백주년 기념사업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2019년까지 3.1운동 및 일제강점기 불교 항일 운동을 망라하는 연구를 진행키로 결의했다.

이들 연구위원회는 근대불교사 전문가인 김광식 동국대 특임 교수 등이 참여한다고 한다.

조계종의 3.1운동 100주년 사업은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불교인사와 사찰에 대한 연구와 자료 발굴 · 조사를 통해 불교계의 항일운동을 재조명하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윈스턴 처칠의 말처럼 불교 역시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역사에 대한 연구와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연구가 미진한 근대불교사는 한국불교가 반드시 짊어지고 갈 과제이다. 3.1운동 100주년 사업이 항일불교와 근대불교를 이해하는 장으로 자리잡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꽃으로 본 세상만사
정상교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무엇을 찾아 세상에 왔을까

늘 꿈꿔오던 직업을 가졌고 그래서 정말로 즐겁게 생활한다던 외국에 사는 친구가 어느 날 잠들기 전, 노래를 하나 보내왔다. 학창시절 좋아한 '마왕' 신해철의 '우리 앞의 생이 끝나갈 때'였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질문은 지워지지 않네. 우린 그 무엇을 찾아 이 세상에 왔을까"

이 때문에 결국 우리는 '사는 게 뭘까'라는 매우 흔하지만 어려운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친구는 하루하루 즐겁게 원하던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역시 반복됨을 알게 된 어느 날, 자기 안에 숨어있던 이 질문이 다시 떠올랐다고 했다. 그리고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단다. 친구와 대화를 마치고 잠을 청하며, 안타깝게도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마왕'은 그 답을 찾고 눈을 감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 무엇을 찾아 이 세상에 왔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기에 이 질문에 대해 새삼 친구와 의문을 품을 이유가 없었다. 아니, 완전히 알지는 못해도 그 대답은 이미 숱하게 많이 들어보았다.

우리는 욕망 때문에 이 세상에 온 것이고, 행복이라는 이름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살아간다. 욕망의 실현은 행위를 불러일으키고, 행위는 반드시 결과를 남긴다. 남겨진 결과의 힘이란 참으로 무서우리만큼 정직하다.

그래서 3가지 선한 행위를 하고 5가지 악한 행위를 했을 때 2가지 악한 행위의 결과만 받아 소진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3가지 선한 행위의 결과는 그 결과대로 기쁨을 누려야 하고, 5가지 악한 행위의 결과는 또 그 결과대로 고통을 받으며 소진해야만 한다.

그렇게 남겨진 결과(할머니들은 이를 '업보'라 부른다)를 다 소진할 때까지 우린 다음 생으로, 또 다음 생으로 이어지게 된다. 물론 결과를 만들어내는 행위는 어디까지나 '내 마음'이 주체이기 때문에 결정론이나 운명론과는 다르다.

이처럼 지난 생의 행위의 결과인 업보 때문에 이 세상에 왔음을 난 알고 있었는데 왜 친구에게 말하지 못했을까.

업보로 인해 이 세상에 왔고, 또 다음 생으로 간다고 하는 '윤회'는 시간과 공간 개념을 삶과 죽음 너머까지 확장시켜야하기 때문에 종교가 다른 이와 진지하게 나눌 수 있는 주제는 아니다. 사실 불교학을 공부하는 불교학자라고 해도 윤회의 관념을 하나의 상징체계로 이해하는 사람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린 그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왔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불교는 분명히 대답을 주고 있다. 시작을 알 수 없는 그 언젠가부터 내 마음에 잠재되어 있는 욕망은 생을 달리하면서 여러 조건을 만나 싹을 틔운다. 그래서 그 욕망을 끊어내지 못하는 한, 꿀을 찾는 벌처럼 우린 그 욕망을 찾아 이 세상에 또 올 것이다.

이 이야기를 그 친구가 듣는다면 여전히 '조물주의 뜻'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이야기만큼이나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조물주의 뜻' 때문에 이 세상에 왔다면 조물주를 만나지 않고는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지만 '내 마음' '내 욕망' 때문에 이 세상에 왔다면 최소한 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다음에는 꼭 친구에게 불교의 대답을 이야기 해주어야겠다.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	연 락 처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512-5003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0-8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부 산 지 사	이 도 경	010-5640-8883

즐겁고 신나는 여름불교학교 "바른길을 찾아라 붓다고!"
제59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에서는 "즐겁고 신나는 여름불교학교-바른길을 찾아라 붓다고!"라는 주제로 제59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합니다. 함께 노래하고, 율동하고, 체험하며, 뛰고 즐기는 사이 어느새 여름불교학교의 고민이 사라집니다!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통하여 법회, 여름불교학교, 템플스테이의 질을 높이고, 계층포교 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알차게 꾸몄습니다. 강습회에서 동참하시면 여름불교학교를 준비하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주 제 : 즐겁고 신나는 여름불교학교 "바른길을 찾아라 붓다고!"
2 일 시 : 2017년 6월 17일 (토) 오전 9시 ~ 오후 6시
3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9길 35)
4 대 상 : 계층법회 및 불교학교 지도자, 템플스테이 실무담당자, 포교사 등
5 참가비 : 5만원 (사전 접수 시 / 당일접수 6만원)
입금계좌번호 - 국민 610301-04-132532 / 농협 053-01-267940 (예금주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 참가비 입금 확인 후 접수 완료. 참가비 입금 미확인 시 당일접수 참가비 적용
※ 환불은 사전 접수 기간 내에 취소하신 분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교재와 기념품으로 대체하여 발송
※ 단체별 10인 이상 접수 시 10% 할인 / 제주도, 군종병 3만원 ※ 본회 정기 후원회원은 무료
6 일정표

시 간	내 용
09:00~09:30	접 수
09:30~10:00	입 재 식
10:00~11:00	[강의①] 다 함께 Singalong!!!
11:00~12:00	[강의②] 찬불가 율동의 활용과 실제
12:00~13:00	점 심 공 양
13:00~15:30	[강의③] 체험활동 즐거운 체험 붓다고!
15:30~15:50	휴 식
15:50~17:30	[강의④] 레크리에이션의 활용과 실제 - 대동한마당
17:30~18:00	회 향 식

※ 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접수 : 선착순 100명
접수방법
※ 사전접수 마감 : 2017년 6월 13일(화) 오후 6시까지
※ 인터넷(이메일), 팩스 접수 후 참가비 입금
▷다음까페에서 안내문 다운, 작성 후 이메일 접수
다음까페 - http://cafe.daum.net/burec
E-mail - burec@daum.net
▷첨부된 안내문을 작성하여 팩스 접수
Fax. 02-738-7863
▷스마트하게 카카오톡으로 신청하기
플러스친구에서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검색, 친구추가
▷전화 접수 가능 : ☎ 02-738-7860
8 준비물 : 개인 물컵, 필기도구
9 문의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사무국(02-738-7860 / 02-739-4967)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